

2013 강릉재팬위크



2013년 3월 11일(월)~3월 24일(일)

강릉문화예술관 | 강릉미술관 | 강릉원주대학교 | 관동대학교



문화의 도시 강릉에서
일본문화를 체험하자!



다마키 나미 콘서트



H2 다이도게 퍼포먼스

주최 : 주한일본대사관

후원 : 강릉시, 강릉원주대학교, 관동대학교,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일본정부관광국(JNTO) 서울사무소

DONGWOO FINE-CHEM 일반재단법인 음악산업 · 문화진흥재단(PROMIC) CHANNEL

문의 : 강릉원주대학교 일본학과 사무실 033-640-1601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02-765-3011(내선120,123) <http://www.kr.emb-japan.go.jp>

검색창에 **주한일본대사관** 을 쳐보세요!

무료관람

일한 양국은 1998년 정상회담에서 지역간 교류 촉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공동선언을 통해 활성화에 합의했다. 이를 계기로 일본정부는 한국 내에서의 지역간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1998년 광주를 시작으로 매년 한국의 여러 도시에서 JAPAN WEEK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문화와 교육의 도시로 알려진 강릉에서 개최되는 이번 JAPAN WEEK에서는 일본의 전통예술과 문화, 대중음악 등 다채로운 행사가 소개될 예정이다. 짧은 기간이지만, 강릉시 안에서 다양한 일본문화를 한 번에 접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전 시

일본의 세시풍속전 한일전통공예포스터전

3월 11일(월)~17일(일) 오전 10시~오후 6시 (무휴)

강릉문화예술관 대전시실

주최: 주한일본대사관 후원: 강릉시

무료관람

일본의 계절별 행사 및 풍습 등을 의상, 인형, 소품, 장식물 등으로 소개한다. 7단 히나인형세트를 비롯해, 각 절기를 표현한 인형세트, 또 그 절기에 해당하는 음식 모형 등 다양한 전시물들이 소개된다. 그 밖에도 전통의상 착용 및 전통완구 체험을 통해 관람객이 직접 일본의 전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일본 교토(京都)성유대학 조형공학부 나카노 요시토(中野仁人)교수가 제작한 한국과 일본의 전통공예를 소재로 한 공예포스터전도 함께 열린다.

일본의 세시풍속전



다루마



하코이타



마메마기



일본의 전통의상 체험



요요풍선 낚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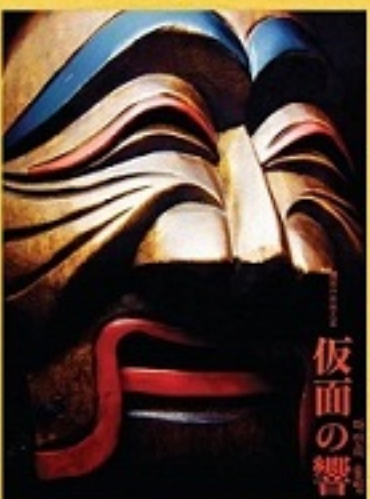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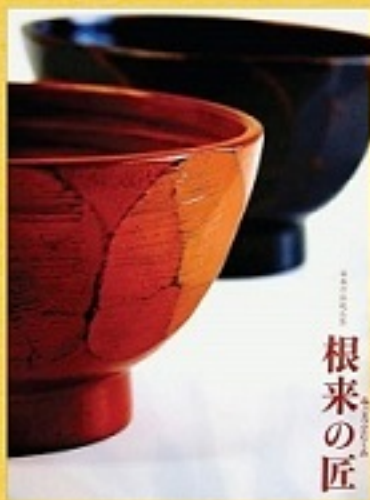


일본의 전통완구 체험



7단 히나인형 장식

한일전통공예포스터전



일본의 전통미술 우키요에(浮世絵 - 다색 판화)전

3월 13일(수)~24일(일) 오전 10시~오후 6시(단 24일은 오후 3시까지, 월요일 휴관)
강릉미술관

주최 : 주한일본대사관, 강릉시,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무료관람

현존 최고의 장인들이 수 백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구현해 낸 당대 최고의 걸작 우키요에가 살아 숨쉰다. 2013강릉재팬워크를 기념해 고흐, 모네, 마네 등 유럽 인상파 거장들을 사로잡았던 일본의 전통다색목판화 우키요에 전시회가 강릉미술관에서 열린다. 한국에서 개최된 우키요에 전시회 중 최다 작품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회에는 히로시게, 호쿠사이, 사라쿠 등 최고 거장들의 풍경화와 인물화 130점이 전시된다.

우키요에란?

에도시대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다색판화로 유럽의 인상파 화단에도 영향을 끼친 일본의 대표적인 전통미술. 대표적인 작가로는 가츠시카 호쿠사이(葛飾北斎), 우타가와 히로시게(歌川広重), 도슈사이 사라쿠(東洲斎写楽) 등이 있다.

현실과 동경이 만들어낸 자유의 세계

우키요에는 주로 명승지, 가부키배우, 기녀 등이 그려진 에도시대(1603~1867)의 그림을 지칭한다. '우키요'는 '이 세상'을 뜻하는데, 중세 때까지는 '浮世'('浮'는 우물, '世'는 의미)라고 쓰여지기도 했다. 그런데 에도시대에 서민문화가 왕성해지면서 서민들의 현실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浮世'('浮'는 '떠오르다'라는 의미)라는 한자를 쓰게 되었다. 즉, '우키요에'는 '이 세상'이라는 뜻의 '이 세상'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그린 그림인 것이다.

우키요에는 크게 친필화와 목판화의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판화는 히시카와 모로노부를 시발점으로, 스즈키 하루노부 등에 의한 다색판 기법인 니시키에의 출현을 계기로 크게 발전했다. 대표적인 작가로 기타가와 우타마로, 우타가와 히로시게, 가츠시카 호쿠사이 등이 유명하다. 우키요에는 숙련된 화가와 조각가, 판화가 등 장인들의 공동작업으로 제작되는데, 서적처럼 출판처에서 수십 또는 수백 부씩 찍어 우키요에 상점에서 판매했다. 고객의 대부분이 일반 서민들이었기에 판매를 위해서는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어야만 했다. 우키요에가 지니는 새로움, 진기함, 아름다움 등의 특징은 이러한 현실적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예를 들면 당시에는 드물었던 와인 글라스나 조선통신사가 그려진 그림들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당시 사람들의 선진문화에 대한 동경심과 호기심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또 원근법이나 서양에서 착수입된 선명한 색채의 물감이 사용되는 등, 기법 면에서도 화가들의 왕성한 호기심이 엿보인다. 한편, 그 대담한 구도나 색채는 서양의 근대화화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재패니즘의 유행에 한 몫을 했다. 일례로 고흐가 히로시게의 그림을 유화로 묘사한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우키요에의 내용은 상당히 다채롭다. 과거, 사건·사고, 축제, 풍자화 등 인간세계의 모든 현실과 환상을 망라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풍경화, 미인화, 배우화를 중심으로 소개하는데, 우키요에 특유의 자유로운 내용, 색채의 풍부함, 디자인 감각의 탁월함 등 그 독특한 매력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은 모두 당시의 기술을 그대로 이어받은 현대 우키요에 장인들이 제작한 복각화들이다.



에도케/오니지(江戸兵衛/鬼次) - 도슈사이 사라쿠(東洲斎写楽)작



마쓰모토 요네사부로(松本米三郎)의 계와이자카의 소장 사실은 시노부(松本米三郎のけはい坂少将実しのか) - 도슈사이 사라쿠(東洲斎写楽)작



후가쿠36경 - 고토 스부가초 미쓰이 전포의 익도
- 가츠시카 호쿠사이작



후가쿠36경 - 고타쿠라칸재(高田)의 사자이도
- 가츠시카 호쿠사이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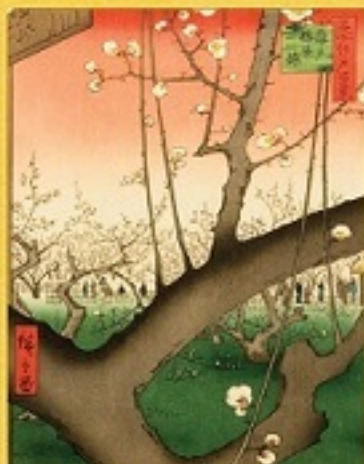
후가쿠36경 - 가나자와만(加賀) 앞바다의 파도
- 가츠시카 호쿠사이작



후가쿠36경 - 천둥치는 후지산
- 가츠시카 호쿠사이작



명소에도백경 - 이타케다리에 내리는 소나기
- 우타가와 히로시게작



명소에도백경-가메이도우메이시키
- 우타가와 히로시게작



거울보는 일곱여인
- 기타가와 우타마로작



간세이(寛政期)의 세 미인
- 기타가와 우타마로작



호쿠쿠의 고사키즈미 - 하급계이사
- 기타가와 우타마로작



JAPAN DAY in 관동대학교

주최 : 주한일본대사관, 관동대학교

3·11동일본대지진 피해지역에 희망주기 프로젝트 - LIGHT UP NIPPON - 영화상영회

3월 11일(월) 오전 10시
관동대학교 쌍마관 콘서트홀



상영작 : 라이트업 니폰-LIGHT UP NIPPON
감독 : 가키토모 겐사쿠
장르 : 다큐멘터리
상영시간 : 100분

제작연도 : 2012년
관람등급 : 전체 관람가
*공동주최 :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LIGHT UP NIPPON」은 동일본 대지진 발생 후, 도쿄의 20~30대 젊은 직장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피해지역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자는 취지로 2011년 8월 11일 피해지역 10곳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복구의 염원을 담아 일제히 불꽃을 쏘아 올린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젊은 직장인들은 광고, 미디어, 법무, 아트, IT 등 각자 다양한 전문분야 지식과 네트워크를 최대한 발휘하여 일본 사회의 수많은 공감과 지지를 얻었다. 이를 통해 모인 기부금과 협찬금으로 피해지역의 사람들과 의견을 조율하여 10개의 피해지역에서 불꽃을 올리기까지의 과정을 담아 다큐멘터리로 제작했다. 특히 국내에도 잘 알려진 세계적인 음악가 사카모토 류이치가 음악감독으로 참여해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미치가미 히사시(道上尚史)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장 강연회

3월 11일(월) 오후 1시 30분~2시 20분
관동대학교 쌍마관 콘서트홀



강연주제: 국제 커뮤니케이션과 일본문화 이해 ~일본 외교관이 본 한국과 중국~
일한 양국 문화교류의 최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미치가미 히사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장의 문화교류에 관한 강연회.

도쿄대학 법학부 졸업,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석사과정 특별연수생, 하버드대학 석사, 외무성 북동아시아과, 주제네바대표부(WTO), 주한일본대사관 참사관, 내각부 참사관, 주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대사관 공사 등을 거쳐 2011년 7월부터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장에 재임중. 저서로는 '한국을 모르는 한국인, 일본을 모르는 일본인' '일본외교관, 한국 분투기' '외교관이 본 중국인의 대일관(對日觀)' 등이 있다.

일본국비유학/JET프로그램 워킹홀리데이/일본기업 설명회

3월 11일(월) 오후 2시 30분~4시 20분
관동대학교 쌍마관 콘서트홀



일본 정부 초청 국비유학 및 소정의 시험을 거쳐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에 일정기간 근무하는 JET(국제교류원) 프로그램, 일본에서 일을 하며 여행도 할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등에 대한 설명회와 함께 템프스텝코리아 대표의 설명으로 일본계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며, 또 일본계 기업은 어떤 인재를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일본 기업설명회가 이어진다.

*협력 : 템프스텝코리아

헤븐아티스트 Hi2 다이도게(大道芸) 퍼포먼스

3월 11일(월) 오후 12시 30분~1시
관동대학교 학생회관 앞 광장

매직, 애니메이션댄스, 판토마임, 저글링 등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퍼포머 'Hi2'의 공연. 흥미롭고 재치 있는 무대 매너로 관객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할 예정이다.

헤븐아티스트 Hi2히투



1990년 미야자키현 출생.
크리스탈볼 & 모자저글링, 판토마임에 애니메이션댄스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함께 에드리브 중만 한 즐거운 토크로 관객을 즐겁게 한다. 대미를 장식하는 것은 Hi2 특유의 포크매직으로, 보고 있는 동안 포크가 차츰 오브제로 변화하는 모습이 놀랍다. 스타일리시하고 기품있으며, 센스와 템포가 좋은 현재 일본에서 크게 주목 받고 있는 젊은 퍼포머 중 한 명.

수상경력
2011년 에노시마(江ノ島) 다이도게(大道芸) 콘테스트 준우승
2012년 도쿄도(東京都) 공인 헤븐아티스트 취득
예왕(芸王) 그랑프리 관동대회 우승
예왕(芸王) 그랑프리 결승대회 우승

*다이도게(大道芸)- 마술을 중심으로 하는 종합 퍼포먼스

*헤븐아티스트- 2002년에 도쿄도가 창설한 다이도게 예능인 공인제도, 혹은 그 라이선스 보유자를 칭한다. 도쿄도 생활문화스포츠국의 심사에 의해 오디션에서 합격한 다이도게 예능인에 대해 라이선스를 발행한다. 그 목적은 수준 높은 예능인을 선발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오락을 제공하고, 또 뛰어난 다이도게 예능인을 육성하고자 함에 있다. 이 오디션을 통과해 라이선스를 취득한 예능인에 한해 지정 장소에서의 공연이 허가된다. 주요 활동 장소는 우에노공원, 요요기공원, 도쿄돔, 오다이바해양공원 등 도내 44개소.





JAPAN DAY in 강릉원주대학교

주최 : 주한일본대사관, 강릉원주대학교

벳쇼 코로(別所浩郎) 주한일본대사 강연회

3월 12일(화) 오전 10시
강릉원주대학교 교육지원센터 합동강의실 119호



벳쇼 코로 주한일본대사의 특별강연회.

도쿄대학 법학부 졸업, 주미국일본국대사관 참사관, 외무성 북동아시아과 과장, 주영국일본국대사관 참사관, 경제협력개발기구 일본정부대표부공사, 내각총리대신비서관, 외무성 종합외교정책국장, 외무성의관 등을 거쳐 2012년 9월부터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로 재임중.

헤븐아티스트 Hi2 다이도게(大道芸) 퍼포먼스

3월 12일(화) 오전 11시 30분~12시
강릉원주대학교 교육지원센터 합동강의실 119호 앞 로비



매직, 애니메이션댄스, 판토마임, 저글링 등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퍼포머 'Hi2'의 공연. 흥미롭고 재치 있는 무대 매너로 관객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할 예정이다.

헤븐아티스트 Hi2히투

1990년 미야자키현 출생.

크리스탈볼 & 모자저글링, 판토마임에 애니메이션댄스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함께 애드리브 충만한 즐거운 토크로 관객을 즐겁게 한다. 대미를 장식하는 것은 Hi2 특유의 포크매직으로, 보고 있는 동안 포크가 차츰 오브제로 변화하는 모습이 놀랍다. 스타일리쉬하고 기품있으며, 센스와 템포가 좋은 현재 일본에서 크게 주목 받고 있는 젊은 퍼포머 중 한 명.

*다이도게(大道芸)- 마술을 중심으로 하는 종합 퍼포먼스

*헤븐아티스트- 2002년에 도쿄도가 창설한 다이도게 예능인 공인제도.

일본국비유학/JET프로그램/워킹홀리데이/일본기업 설명회

3월 12일(화) 오후 1시~2시 50분
강릉원주대학교 교육지원센터 합동강의실 119호

일본 정부 초청 국비유학 및 소정의 시험을 거쳐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에 일정기간 근무하는 JET(국제교류원)프로그램, 일본에서 일을 하며 여행도 할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등에 대한 설명회와 함께 템프스텝코리아 대표의 설명으로 일본계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며, 또 일본계 기업은 어떤 인재를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일본 기업설명회가 이어진다.

*협력 : 템프스텝코리아



일본의 3대 전통예능 노가쿠(能楽) 워크숍

3월 12일(화) 오후 3시~4시
강릉원주대학교 교육지원센터 합동강의실 119호

가부키(歌舞伎), 분라쿠(文楽)와 함께 일본의 3대 전통예능으로 꼽히고 있는 노(能)는 14세기 중엽에 성립된 가무극으로 주로 노멘이라는 가면을 쓰고 공연하며, 귀족적 색채가 강한 매우 정형화돼 있는 의식예능이라 할 수 있다. 이번 노(能) 워크숍에서는 2012년도 일본문화청 문화교류사를 역임한 다쓰미 만지로(辰巳満次郎)-시테가타 호쇼류 노가쿠시(シテ方宝生流能楽師)씨의 시범과 함께 재미있는 해설로 노(能)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려 한다.

다쓰미 만지로辰巳満次郎 시테가타 호쇼류 노가쿠시(シテ方宝生流能楽師)



시테가타 호쇼류 노가쿠시. 故다쓰미 다카시의 차남으로 고베시 이쿠타구(현재는 중앙구)에서 출생. 부친을 사사, 4살 때 첫 무대에 섰다. 고리노가쿠도(香里能楽堂)의 건설과 함께 오사카 네아가와시(寝屋川市)로 이주.

1978년 도쿄예술대학 음악학부 방악과에 입학과 동시에 상경하여 도쿄에서 수행을 개시. 18대 종가 호쇼후사오(宝生英雄)의 내제자가 되었다. 1986년 독립하여 1991년까지 도쿄예술대학에서 조수로 근무. 도쿄와 오사카 사이의 도카이도(東海道)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공연 및 실기지도, 보급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뉴욕 유엔건물 앞 광장, 메트로폴리탄미술관을, 이집트 스피크스 앞 특설무대 등의 해외공연을 기획하고 참여했으며, 그 밖에도 런던, 베이징, 상하이, 항저우, 방콕, 멕시코시티, 부에노스아이레스, 산티아고, 워싱턴 등지에서 공연했다.

또한 전통적인 수법이 만들어내는 특유의 위화감을 없앤 신작활동의 기획에도 참여하여 2006년 동서고전예술문화의 융합 프로젝트(하고로모국제대학일본문화연구소제작)의 일환으로 신작 노(能) '맥베드', 2008년 '악극의 제전' 겐지모노가타리 천년기(간사이악극페스티벌협회 제작)의 신작 노(能) '로쿠조(六条)'의 연출과 주연을 맡았다.

2001년 중요무형문화재종합지정을 받았으며, 2005년도 오사카문화제상장려상 수상.

사단법인 일본노가쿠회 회원, 사단법인 호쇼카이 회원, 오사카 호쇼류(宝生流) 정기 노(能) '싯포카이(七宝会)'를 주재, '만지로노카이(満次郎の会)' '다쓰미카이(達実会)' 호쇼류아마네카이(宝生流あまねく会)'를 주재



노(能) 워크숍



아마-海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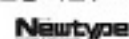
J-POP CONCERT

일본 아티스트 다마키 나미 콘서트

NAMI TAMAKI

3월 12일(화) 오후 5시 (4시 30분부터 입장) 강릉원주대학교 해람문화관

공동주최: 주한일본대사관, 강릉원주대학교
일반재단법인 음악산업·문화진흥재단(PROMIC)

협력:    

후원: 

*문의: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TEL (02)765-3011 (내선110,153)

●자세한 사항은 주한 일본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r.emb-japan.go.jp>

●공연 종료 후 추첨을 통해 아티스트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선착순 무료 관람



프로필 | 다마키 나미(玉置成実)



1988년 6월 1일생. 와카야마현 출신 와카야마시 관광홍보대사. 성공의 열매가 되라는 의미로 '나미(成実)'라는 이름을 지음. 2001년~2002년, 'Sony Music Audition'에 응모하여 DESTINY'S CHILD 'Survivor'등을 열창. 수준 높은 댄스 퍼포먼스를 펼치며, 주목을 받았다. 2003년, 불과 14세의 나이로 소니뮤직에서 싱글 'Believe'를 발표하며 데뷔. 이 곡은 전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애니메이션 '기동전사 건담' 시리즈의 새 시리즈인 '기동전사 건담SEED'의 주제가로도 사용되었다.

오리콘 주간차트 첫 등장에 5위, 20만장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 이후 현재까지 싱글 20장, 정규음반 6장을 발표. 정규앨범으로는 오리콘 주간 차트 1위를 2번, 싱글에서는 최고 2위를 기록. 또한 절도 있는 댄스를 선보인 프로모션 비디오가 화제가 되어 유튜브 조회수가 100만회를 넘었다. 나아가 LA를 중심으로 한 미국에서의 댄스 퍼포먼스가 높이 평가되어 해외 투어도 나서는 등 국제적으로도 활약하고 있으며, 브로드웨이 뮤지컬 주연을 맡고 영화에도 출연하는 등 여배우로서의 재능도 발휘하고 있다.

2009년, 유니버설 뮤직으로 이적. 2011년 1월 12일, 한국의 인기 그룹 초신성을 피쳐링한 20번째 싱글 'Missing You -Time To Love-feat. KWANGSOO, JHYUK, GEONIL (from 超新星)'을 발표.

2011년 2월 23일, 한국, 영국, 스웨덴의 탑 크리에이터를 가용한 6번째 정규음반 'Ready'

를 발표. 2011년 2월 24일, 사진집/DVD '月刊 NEO 다마키 나미'를 발매. WEB(라쿠텐(楽天))차트에서 1위를 차지함. 4월, 한국·서울, 대만·타이베이, 홍콩, 중국·광저우, 4개 도시에서 열린 아시아투어도 성황리에 마쳤다. 9월,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음악 이벤트(상하이, JAPAN WEEK 2011)에 참가. 10월, 임중국교정상화 40주년 기념무대, 이치카와 엔노스케(市川猿之助) 종합연출 '칭기스칸'에 출연.

2012년 1월, 데이치쿠 엔터테인먼트 임페리얼 레코드로 이적. 아무로 나미에(安室奈美恵) 등의 악곡을 제공하는 오사와 신이치(大沢伸一)씨를 프로듀서로 맞이해 이적 제1탄 싱글 'LADY MIND'를 발표했다. 10곳 이상의 전국 FM라디오국에서 파워 플레이를 획득하는 등 혁신적인 음악이 높게 평가되었다.

2012년 3월, 한국 3개 도시(서울, 제주, 평택 JAPAN WEEK 2012)에서 콘서트를 개최.

4월, 뮤지컬 '커피 프린스1호점'에 출연. (도쿄·오사카 공연)

4월 23일부터 데뷔 10주년을 기념해 단독 라이브를 도쿄·오사카에서 개최.

7월, 홍콩에서 열린 특별 이벤트 출연, 단독 라이브를 개최.

9월, 뮤지컬 '달려라 메로스(走れメロス)'에 출연. (도쿄·나고야·오사카 공연)

10월 10일, 오사와 신이치 프로듀스에 의한 이적 제 2탄 싱글 "PARADISE" 발표.

10월 14일, 시부야 O-EAST에서 데뷔 10주년 기념 라이브를 개최.

<http://www.tamaki-nami.net>

일본관광안내전

3월 12일(화) 오전 11시~오후 4시 강릉원주대학교 학생회관 학생식당 앞 로비

협력:  일본정부관광국(JNTO) 서울사무소

일본 여행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본 각지의 관광지를 소개하는 안내책자, 브로슈어 등을 배포한다. 여행사에서 구하기 어려운 일본 여행에 관한 다양한 자료들을 구할 수 있다.

